

'뉴질랜드 안보정보국의 2024년 안보 위협 환경' 사례 연구

이러한 사례 연구는 [뉴질랜드의 안보 위협 환경 | 뉴질랜드 안보정보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례 연구에서 말하는 '외국 정부'는 뉴질랜드 이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뉴질랜드 안보정보국(NZSIS)의 정의에 의하면 외국의 간섭이란 외국 정부가 기만적이거나 부패하거나 강압적인 수단으로 뉴질랜드 국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것을 방해 또는 교란하려는 의도로 종종 대리인을 통해 행하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외교 활동, 로비 활동 및 영향력을 얻기 위한 다른 순수한 공개적 노력은 간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례 연구 1

2023년, 어느 외국 정부가 뉴질랜드의 대리인을 통해 한 지방자치단체에 접촉해 특정 종교 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데 동의하면 지역 행사에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외국 정부는 그 단체가 자국에서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 이주민의 '의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사례 연구 2

NZSIS는 다수의 뉴질랜드 학생 그룹(어느 외국의 해외 거주자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음)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외국 외교관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외교관은 선출된 학생 그룹 운영진이 그 외국 정부에 정치적으로 충성하도록 만들고자 이런 유대관계를 이용해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학계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학생 그룹과의 관계를 숨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외국 간섭의 한 예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룹과 그 구성원들이 해당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제하려 하며 반체제 인사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사례 연구 3

소수의 외국 정부가 뉴질랜드의 특정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종종 이들 정부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용하여 뉴질랜드에서 그 정부가 반체제 인사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정보는 비자를 취소한다거나 아직 자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표적으로 삼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한 외국 정부는 본국 가족을 방문하려는 뉴질랜드인의 비자 신청을 그 정부가 싫어하는 지역사회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